러한 特殊瓦에 對해서는 아무런 解說 또는 言及이 없었다。

以上의 두 異型瓦當의 使用法을 생각해 보니 좋은 생각이 나질 않는다。前者는 椽端瓦의 試作品 또는 鴟尾의 兩翼間을 메우는 後壁에 있을 수 있는 구멍을 메우는 것일까、後者는 아마도 마루 또는 合閣마루나 春舌마루 끝에 사용된 적새의 一種으로 使用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春舌마루 등에 使用된 望瓦 같은 것인지 同學 諸賢을 바라는 바이다。

原城 法泉寺址 發見 石燈火舍片

金 東 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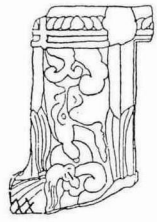
一九六五年 二月 十五日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二區 法泉寺址內 智光國師 玄妙塔 殿址의 補修 工事를 하던 中 中央建物址 西南角 基壇石밑에 埋沒되어 있던 石燈 火舍石 大小 二片을 發見하였다。이들 火舍石 二片은 多幸히 復原이 可能하여 그 規模를 수월하게 짐작할 수가 있고 그 彫法이나 아이디아가 現在 알려진 石燈 火舍石과 比較하여 독특한 바 있어 石燈 研究에 좋은 資料가 되겠기에 簡單히 紹介코자 한다。

이미 알려진 石燈 火舍石의 大部分이 八角形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復原 實測한 結果 六角形임을 알게 되었다。石質은 軟한 花崗石으로서 三面을 火窓으로 한듯 하다。火窓은 長方形이며 石燈 蓋石 바로 밑 部分은 二一·八㎝ 幅으로 唐草文을 陽刻하여 돌렸고 그 밑은 四·二㎝ 幅으로 一面을 여섯個의 區間으로 劃定하여 花葉文을 刻하였다。稜形 裝飾 끝에는 구슬을 달고 그 안에서 一面 垂直中心線 양편으로 커텐을 걷어올려 轉角部에서 結束하여 아래로 늘어뜨렸다。커텐 안쪽으로는 間隔 一·八㎝로 分割한 窓위 引枋 裝飾이 커텐 사이로 나타나 보이고 있다。火窓의 아래는 單瓣仰蓮을 彫刻하여 밑 部分을 處理하였다。막힌 面은 稜形裝飾文까지는 同一한 彫法으로 刻되었고 그 밑은 구름을 탄 飛天像이 浮刻되었으나 磨損이 甚하여 뚜렷하지 못하다。飛天像 아래는 兩手에 무엇인가를 든(磨滅이 甚함) 供養像(?)이 또한 雲紋 위에 浮彫되었고 佛頭周圍에는 圓頭光이 刻되었다。

火舍石 底面으로부터 六·七㎝의 幅으로 欄干을 돌렸다。欄干은 돌판대와 法首가 달린 欄干柱로 構成되었으며 欄干柱 사이에는 仰蓮을 刻하였다。



部落民 郭在寧氏宅 장독대에서 六角 臺石이 發見되어 或是 이 火舍石과 關聯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火舍石復原高 約 四二㎝ 一邊幅 一六㎝ 火窓高 一三㎝ 火窓幅 九㎝

鳳巖寺 磨崖佛坐像

金 和 英

鳳巖寺寺域에서 西北으로 뚫린 溪谷을 따라 約 十五分間 올라가면 玉石臺(一名 白雲臺라고도 稱함)라고 부르는 곳에 巨岩의 北壁을 다듬고 七—十㎝ 정도의 깊이로 龕形처럼 파서 (頭部周圍는 더욱 깊은 便이다) 그 안에 總高 約 六m의 坐像을 陽刻하였다。蓮華座위에 結跏趺座한 如來像으로서 素髮의 頭頂에는 낮는 肉髻가 뚜렷하며 갸름한 相好에는 眉間에 白毫가 있고 兩眼은 半開하였다。鼻部에는 破損이 있어 「씨멘트」로 補强하고 兩耳는 比較的 긴 便이다。목에는 三道가 있으며 通肩한 法衣는 兩腕을 걸쳐 무릎을 덮었고 胸前에는 裙衣의 結帶가 뚜렷한데 衣